

莊陸寺菩薩坐像과

그 腹藏發願文

鄭 永 鎬

檀國大學校 博物館에서는 그동안 三年에 걸쳐 東海岸地區 古蹟을 調査한 바 있다. 筆者의 인솔로 一九七一年부터 一九七三年까지 실시하였 으며 첫째는 慶北 盈德郡과 迎日郡 일대를 踏査하였는데 盈德郡 莊陸寺에서 드물게 보는 紙佛 一軀를 調査하여 尙상 注目해 왔었다. 그런데 최근 이 紙佛의 腹藏發願文이 수습되어 紙佛의 造成年代와 緣由등을 알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귀중한 자료가 되겠기에 여기에 소개하려고 한다.

필자가 처음 이 寺刹을 찾았던 一九七一年 七月 一三日에는 紙佛의 金色이 약간 퇴락하였었는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후 一九七四年度の 改金佛事로 지금은 金色이 찬란하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改金佛事時 紙佛의 腹藏物중에 發願文이 있었던 바 寺刹側에서는 一切物을 태워버릴려고 하는 것을 洞里的 李正大(本名은 秉模 七〇세)氏가 이를 수습하여 보 관하고 있었다 한다. 그러던중 檀國大學校 文理科大學 國文學科의 黃滄江、南豐鉉 兩教授가 今年度 學術調査 대상지역으로 盈德郡을 정하고 지난 七月 一八日에 現地를 訪問했을 때 이러한 사실을 알고 李正大氏로부터 그 紙佛의 「腹藏發願文」을 調査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다. 필자는 黃教授로부터 이러한 여러가지 사실을 전해 듣고 이 紙佛에 대한 관심 이 새로와졌으며 再調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바인데 우선 黃教授로부터 入手한 사진 三枚에서 發願文의 內容을 알 수 있었던 것을 여기에 소개 하고 紙佛도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 發願文은 가로 一·五m, 세로 六〇cm의 한지에 楷書로 墨記하였는

데 보존이 잘된 편이어서 墨書의 內容은 다 알 수 있다. 序頭에 「佛腹藏同發願文」이라 題하고 發願文을 썼으며 末尾에 年月日과 施主者를 적었는데 여기서는 역시 年代가 제일 注目된다고 하겠다.

이제 그 全文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佛腹藏同發願文

惟願弟子生生世世生修善家早遇明師童眞出家
家滌心永斷睡眠輕微於此法門信心堅固戒行
清淨淨進道無魔不過七日早發明廣度
衆生親見彌勒自他一時同成佛道者

主上殿下萬萬歲

顯妃殿下壽齊年

世子殿下壽千秋

諸王□室各保天年兩府百官福壽無疆干戈永

息四海波安各父母離苦趣生淨土立願

洪武二十八年九月初吉

幹善比丘 信庵 勝淳

功德主六閩居士海椽俗號前判事白璫

同室密陽郡夫人朴 □

石門山一信清

連覺清

寧海府使李貴仙

同寧海府使沈□

監場官 張□

前眞珠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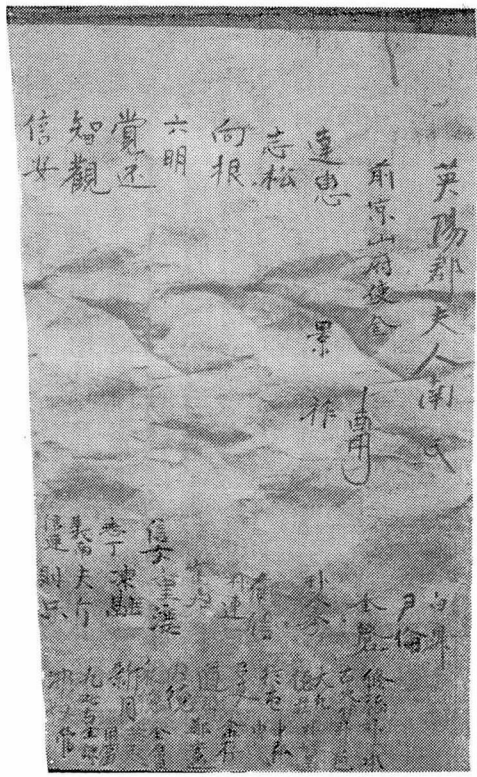
前梁州朴 □

丹陽郡人朴氏

前典書尹 □

玉泉郡夫人全氏

白恒 衍金
長延 夫介
加也赤女 干伊 伐介
青龍女 衆伊 仇邑成
瑟奇女 龜山
於火伊女 申元
福生女 所文伊
榮師女 祿成
上佐 青加女
龍莊女 卜長
嚴珍女 雪莊女



前中郎□朴
丹陽郡夫朴氏
前司字少監朴
楊根□人金氏
前軍器少尹申□
開城郡夫人王氏
前司宰副令朴遠

前郎朴肅
珍島郡人曹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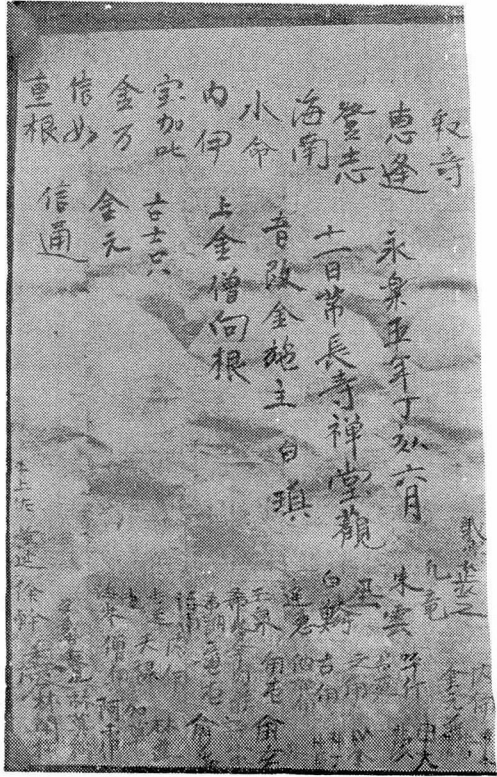
豆彦	守德女
末之彦	金莊女
夢伊女	嚴德女
西洞	加猪伊女
松節	今音莊女
池歸女	猪加伊女
盈德女	徑貴女
僧衆伊	孫金
天祿	原金
黃思	銀莊女
莫莊女	三莊女
內隱金	狹伊女
嚴石	願金
仍邑莊女	處用
粉德女	金生女

이상과 같이 施主者の 명단이 계속되면서 끝 부분에는 또다시 改金하였다는 年代를 표시하였으니 그 내용을 사진으로 옮기면 위와 같다.

이상에서 「洪武二十八年」은 朝鮮 太祖 四年(一三九五)에 해당하며 「永樂五年丁亥」는 第三代 太宗 七年(一四〇七)이 되는데 이 兩年代는 十二年의 差가 난다. 다만 「永樂五年」墨記에서 注意해야 될 것은 「南長寺禪堂觀音改金」이라 하였으므로 「南長寺」란 寺名이 어찌된 것인지를 考慮해야 되겠다.

또한 이 發願墨記에서 注目할 것은 施主者の 명단으로서 이 施主者들은 官職과 함께 姓을 적고 手決을 했으며 官職이 없는 사람들은 이름만 적혀 있고 前官職者는 前官職名을 적었는데 이러한 前職名들은 前代인 高麗時代의 官職研究에 좋은 資料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官職을 가지지 않았던 施主者들은 姓도 없이 이름만 吏讀로 적고 있는데 男子의 名 뒤에는 「伊」、女子는 「女」字를 붙여서 性別한 것도 또한 興味있는 일이라 하겠다.

紙佛은 觀音菩薩坐像으로서 현재 大雄殿의 主尊으로 奉安하고 있다.



莊陸寺의 위치는 盈德郡 蒼水面 所在地에서 약 一三km 되는 葛川一洞으로 필자 踏查時에는 金지공(당시 三〇세)스님이 住持였는데 현재는 다른 스님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 寺刹은 正面五間, 側面二間的 맞배지붕 樓마루집을 들어서면 大雄殿이 있고 그 左側에 「花雲閣」이라는 팔각지붕의 寮舍가 있어 현재는 모두 三棟의 建物로 이루어졌다. 建築年代는 朝鮮後期로 推定되는데 현재는 風雨로 各部가 많이 퇴락된 상태이다. 大雄殿은 正面三間 側面三間的 맞배지붕 建物이며 이 안에는 佛幀 數幅이 걸려있는데 모두 乾隆年間의 造成品이다.

紙佛이라는 菩薩坐像은 佛壇 中央에 木造臺座를 마련하고 그 위에安置하였다.

머리에 華奢한 寶冠을 썼는데 冠帶가 보이며 특히 前面의 花瓣들이 높게 솟아 있다.



莊陸寺 菩薩坐像

相好는 아주 圓滿하며 이마에 白毫가 큼직하다. 兩眉 眼과 鼻樑 口唇 등이 整齊되고 양쪽 귀도 길게 느러졌다. 목에는 三道가 둘러지고 검은

머리가 흘러 양쪽 귀와 양쪽 어깨위까지 길게 느러워졌다. 法衣는 通肩으로 양쪽 팔에 걸쳐 양 무릎을 덮었고 앞차락은 밑으로 흘러 安定感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背面에까지 衣文이 표시되었으며 臍前에는 裙衣가 보이는데 衣文은 모두 流麗하다.

手印은 右手를 臍前에 들어 拇指와 中指를 잡고 外掌하였으며 左手는 무릎위에 놓아 甘露瓶을 받치고 있다. 양쪽 손목에는 팔찌를 끼고 있는데 그 裝飾이 대단히 技巧的이다. 그런데 이 菩薩像에서 技巧的이고도 華奢한 面를 보이는 것은 팔찌나 寶冠보다도 온몸에 걸쳐있는 璣珞이라 하겠다. 가슴을 비롯하여 양쪽 어깨와 그 넘어까지 璣珞이 장식되고 어깨에 장식된 璣珞은 背面뿐만이 아니라 양쪽 팔과 무릎에까지 흘러 寶冠과 잘 調和되고 있다.

처음이 坐像을 대하였을 때 우선 相好가 圓滿하고 均整한 胴體各部의 造成樣式과 寶冠, 璣珞 등의 彫刻手法 등으로 보아 高麗時代의 佛像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는 麗末鮮初의 所作으로 推定하였었는데 이번 腹藏發願文의 수습으로 확실한 造成年代를 알게 되어서 菩薩像 자체의 年代 해결은 물론이러니와 이를 基準으로 하여 다른 諸像의 造成年代를 推定할 수도 있어 더욱 注目해야 할 坐像이라 하겠다.

이 菩薩像의 成造材料는 종이(紙)이므로 紙佛이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 실제 坐像을 移安해 보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寺刹側의 말이었다. 진국적으로 보아 現存 遺品에서 紙佛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인데 이러한 면에서도 또한 注意를 끄는 菩薩像이라 하겠다.

우연한 기회의 腹藏發願文 수습이었으나 이로 말미암아 항상 생각해 오던 이 菩薩像의 확실한 造成年代를 알게 되어서 이 發願文이 더욱 貴重한 資料임을 實感하게 한다. 더욱이 朝鮮初期의 佛敎的인 造型美術이 稀貴한데 이렇듯 絶對年代를 갖고 있는 菩薩像의 出現은 앞으로 이 方面 研究에 다시 없이 貴重한 資料로 더욱 注目될 것이매 이상과 같이 그 대략을 소개하는 바이다.

坐像의 實測値는 (cm) 坐高八五、 頭高(寶冠까지)三四、 肩幅三七、 胸幅二六、 膝幅六〇、 膝高一二이다.